



선배들이 일군 '우생순' 명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리가 잇는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무려 9명 배출
전국체전 메달 목표 매일 '지옥 훈련'
체육관 없어 떠돌이 훈련 서러움도



무안 백제고 핸드볼팀



2008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신화를 재연하기 위해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이 코트 위에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한 편의 각본없는 드라마였다.

아쉽게 준결승에서 노르웨이에 분패, 동메달에 머물렀지만 그녀들의 동메달은 금메달보다 값진 것으로 국민 모두가 힘찬 박수를 보냈다.

'우생순' 신화의 핸드볼 대표팀에 무안 백제고 출신 김은아(백산건설)선수가 있다. 김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중흥무진 활약, 차세대 한국여자 핸드볼을 이끌어 갈 대주자로 자리매김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모교인 무안 백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백제고는 지난 1980년 창단, 그해에 제8회 문교부장관기 전국 중·고등학교 핸드볼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핸드볼계에 데뷔했다.

이후 백제고는 1981년 제9회 문교부장관기 전국 중·고등학교대회에서 당당히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정상권으로 도약, 핸드볼 명문고로 자리매김했다.

김춘례·강숙(이상 23회·IA올림픽 은메달), 김현미·김명순(이상 24회·서울올림픽 금메달), 장리라·차재경·문향자(이상 25회·바르셀로나 금메달), 김정삼(26회·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등 9명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또 11회·12회·14회 아시안게임에서는 장리라와 문향자, 차재경, 김정삼 선수가 출전해 당당히 금메달을 따내는데 주축 멤버로 활약하며 백제고의 명성을 전국에 알렸다.

특히 김은아 선수는 언니 김가나(2005년 졸업)씨가 대구광역시청에서 활약하다 은퇴했으며 동생 김

선화(백제고 3년)가 현재 청소년대표로 활약하며 백제고를 이끌고 있는 등 3세대 모두가 핸드볼 가족이다.

이처럼 백제고는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를 술하게 배출한 명문이지만 체육관 하나 변변히 없어 무안고 등 주변 고교에서 대부분이 연습을 하고 있다. 때론 무안고의 남자선수들과 훈련으로 턱을 볼 때도 있지만 역시 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 됐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선수들이 전국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국가대표 출신 최정호(46) 감독과 최현목(35)코치의 헌신적인 노력이 밑바탕이 됐다.

특히 최 코치는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맘을 흘리는 억척스러움으로 백제고를 최강의 자리에 올려놓은 일등공신이다.

최 코치는 "그동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돼 백제고가 전국 최정상권의 실력을 자랑했다"며 "아쉽지만 졸업생이 많아 올 해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제고의 동메달 목표는 지난해 팀 주축들이 모두 졸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백제고 선수들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한 번의 슛이라도 더 던지기 위해 열심이다.

또 핸드볼은 12~14명의 선수가 있어야만 교체를 하면서 게임운영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백제고는 현재 선수가 절대 부족하다. 총 8명으로 교체 멤버는 1명뿐이다.

전력약화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타 팀과 대결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백제고 선수들은 이



왼쪽 아래부터 최현목 코치, 김은아 선수, 김선화, 김소망, 정아라, 윤여은 선수, 장래선 교장, 뒷줄 왼쪽부터 최정호감독, 김성애, 송지은, 강두리, 김윤지 선수, 고은석 전남핸드볼 전무이사.

러한 어려움을 핑계삼지 않는다. 포기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배들이 쌓아놓은 소중한 전통을 현재 멤버들이 깨뜨리지 않겠다는 자존심이 오기다.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로 남고 싶지 않아 쓰러져도 오목이 처럼 벌떡 일어난다. 쉬고 싶지만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공을 잡는다.

김윤지(3년)선수는 "2006년 4관왕, 지난해 준우승 4차례의 위업을 달성한 선배들이 대부분 졸업했기 때문에 선수부족한 형편이다"며 "하지만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맘을 흘리고 있어 반드시 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새벽 6시30분~8시 초등학교에서 트랙을 돌며 체력을 다지고, 오전 10시30분~12시 30분까지 수비 위주의 기술훈련을 한다. 그리고 오후 3

시30분~7시30분까지 공격과 팀 플레이 등 전술훈련을 통해 실전감을 키운다.

최 코치는 "선수들이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다"며 "그동안 체력위주의 훈련을 꾸준히 해왔고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노메달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연습하고 있어 동메달이라도 꼭 목에 걸겠다"고 말했다.

체육관이 없어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선수가 부족해 부상도 당하면 안되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선수와 감독이 한 마음으로 땀흘리는 백제고 여자 핸드볼 팀. 그녀들의 목에는 이미 제8회 전국체육대회 메달이 걸려 있는 듯 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 (062)220-0551	꿈장어숯불구이 서구 치평동 우리병원 후문쪽 꿈장어숯불구이, 마방구이, 닭발양념숯불구이 대표 송용일 ☎(062)383-9430	상무사골국밥 서구 치평동 현대@건너 먹지골목 국내산돼지내장 사골국밥전문 대표 최영문 ☎(062)381-3117	해송합어 서구 치평동 상무병원옆 대형매장 연회석원비 대표 이혜진 ☎(062)384-9696	베네치아(충장점) 동구 광산동 구도청과 그랜드호텔사이 할인카드안내·광주버(카드)우리모(카드) SK멤버십,현대M포인트등 각20% ☎(062)227-1122	김가네간통기&찜닭 남구 봉선동 봉선초등학교 정문옆 48시간 숙성발효시킨 웰빙식품 9월23일 오픈기념 2,000원할인 ☎(062)651-9288	
해양굴비유통 영광동 법성면 법성리 1148-29 각종굴비 도소매 전문 선물용,남품용 전회주문시 신속배달 대표 조영희 ☎(061)356-0989	중앙총포사 북구 유동 한국노총옆 수렵용(영광)총기, 사격용(영광)총기, 화기(영광)총기 방범장비,수렵장비,일일 ☎(062)526-0526	대박기계설비shop 서구 매월동 산업용제 유동센터18동210호 기계,소방설비,시공도면 작성전문 대표 오을권 ☎(062)603-3674	매월축염소가든 서구 매월동 매월농원입구 맞은편 축염소탕,전골,수육 단체예약가능 대표 송강수 ☎(062)374-6665	(주)대현티에스 서구 매월동 빌드피어B-105호 자동차보험,장기보험,자동차신규이전등록 검사,폐차,말소 취급전문 ☎(062)651-8422	용봉청과 북구 유동동 매향우시장건너편 연영원옆 사과,배,포도 도.소매전문 ☎(010)4916-5737	청와대(양산점) 북구 유동동 회광병원 건너 중화요리전문 대표 김승재 ☎(062)573-5810
한울이용원 서구 광천시장 동사무소옆 구송안대현 컷트,스포츠,염색전문 모범업소 대표 김창호 ☎(062)362-8051	하늘먹은축염소 북구 유동동 미래도모아@입구 축염소@전문점 수육,전골,통주육 대표 이상수 ☎(062)523-9665	가금근로자직업소개소 북구 유동동 미래도모아@4거리 문화센터정문입구 실업친화,빈민도움,취업지원,실거주사모집 ☎(062)267-1104	대영헬스 북구 풍향동 교육대학교 교육관5층 광주,전남 최고의 휘트니스시스템 전문 트레이너,유산소,골프,사우나,정리해설사모집 ☎(062)672-4478	다도해유통 북구 문흥동 무등도서관 맞은편 대주@입구 수출용고등어(진공포장),삼치,미역수, 영광굴비,갈치 도.소매 ☎(062)262-0061	하오~짱 북구 양산동 신흥택시 뒷편 호텔식 중국요리전문점 대소 연회석원비 각종모임및 직장회식현명 퓨전중국음식점 ☎(062)572-5300	팔천순대전통국밥 북구 양산동 우미@건너 아재,고기,김치순대 전품목 포장됩니다 대표 박신영 ☎(062)576-7750
다미원 북구 유동동 회광의원옆 단체손님환영 넓은홀 대표 구창현 ☎(062)521-5831	양산자동차서비스센터 북구 양산동 양주주택 경정비,에어컨점검,보험,검사,대행,관급도매 대표 오경남 ☎(062)576-8514	심령철학원 동구 학동 삼익@와 행복재활원옆 과거,현재,미래상담 예약상담 대표 김현자 ☎(062)227-0731	24시침술구이 북구 양산동 지이1,2차 @입구 생삼겹살,오돌볶음,향정식,막창살 대표 이상운 ☎(062)576-9340	온수보일러매트총판 남구 봉선동 모아차 맞은편 새내사승강옆 고유가대형보일러,냉방장치,배수,배수,배수,배수 빅사이저기실용 모노로매트 ☎(010)7920-3690	돈아돈아 남구 범립동모아1차상가 1층101호 유행요리,축육,요리,야채,음식,생선,채,잡채,찜 단체예약손님환영 ☎(062)654-2009	전주영양들출발 서구 광천동 광명하이츠4거리 농협건너편 해로,건강,살얼음,늘씬,남자,남자,남자,남자,남자 ☎(062)381-9235